

김혜영 사버나 | 한빛미디어노동안련센터

| 내 하루의 십일조

진초록 나무들과 웅성대는 꽃들로 눈부신 6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하루하루 성실히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화려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2년 전 퇴직하면서 ‘아침기도’와 ‘미사’를 매일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하루가 온전히 저의 자유의지에 달렸으니 가능할 것 같았고, 어느 날 피어날 은총의 꽃을 자랑할 욕심에 미리부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기도와 미사를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주보에서 읽었던 신부님의 글이 떠오릅니다. 신부님이 어렸을 때,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눈을 비비며 나오면 항상 어머니께서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신부님을 사제의 길로 이끌었고, 가장 깨끗한 옷차림으로 새벽 미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지금까지 하느님 안에서 살게 하는 뒷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자신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신경 써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으려고 분투했고(?), 큰아들 한빛(프란치스코)의 군복무 기간에는 매번 새벽 미사를 하고 출근해 종일 비몽사몽 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조금만 틈새가 생겨도 기계적으로 묵주기도를 했으니 누가 보면 신앙심이 대단한 엄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빛이 하늘나라에 있어 슬픈 기억이 되었지만, 신부님의 어머니처럼 저도 참 괜찮은 엄마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한빛이 공군 훈련소 때,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와 고해성사를 했다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해소에서 가슴이 벅차 아무 말도 못하다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몰래 봤다고 띄엄띄엄 고백하니 신부님께서 엄마한테 ‘미사 드렸다고 전화

하라’는 보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하는 한빛에게 울컥하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착각이었습시다. 저에게 미사와 기도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감추는 교만이었고 저의 불안함을 달래고자 하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사 지향도 목적이 바뀌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는 데 급급한 저 나름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미사와 기도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이미 차지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하루의 십일조는 2시간 24분인데 최소한 이 시간이라도 봉헌하고 있나 반성합니다.

이번 예수성심성월에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 주심으로써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한 빛을 의탁하며 정성껏 제 하루의 십일조를 봉헌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한빛에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한껏 묵상



오소서 영령님!
영혼의 기쁨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픔과 아픔에
위로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성령아침마침일 밤속가운데서



거룩한 부담

아들 한빛(프란치스코)이 떠난 후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켜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매일 무너집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에 닥친 파괴적 슬픔은 어떠한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었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신비스러웠습니다. 고마운 이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를 일으켜주고 남은 삶을 살아내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운명’이란 말도 있지만 ‘운명에 맞서다’라는 말도 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회의 ‘하늘마음(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자녀 사별자 모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고, 혼자만의 아픔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감하면서 힘을 얻었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 친구들이 함께 치유하고 봉헌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슬픔 속 희망 찾기’도 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돌이킬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아들이 죽음의 흔적보다는 ‘희망의 언어’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안간힘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건네며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 줍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 ‘한빛의 친구’들도 저에게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들은 한빛센터 후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초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자 하는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아들의 빈 자리를 채워줍니다. 피디(PD)가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며 화려한 스크린 뒤 열악한 노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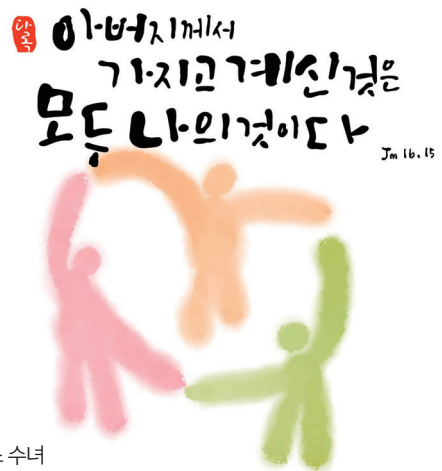
김혜영 사버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고민했고, 최소한 사람이 사람에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했던 한빛에게 주님이 이어 준 인연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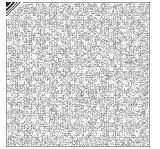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억지 썼는데, 주님은 토마스의 신앙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처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3,19) 이 말씀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새 일이 완성될 것임을 희망하며 붙잡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 ‘거룩한 부담’으로 기꺼이 받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주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한빛 엄마’로 살면서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한빛을 기억하며 한빛이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날들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한껏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김혜영 사버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 맞는 비

함께 한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빛(프란치스코)이 떠난 후 친구, 동료에게서 한빛이 비정규직 등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고민했을 아름다운 삶이지만,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한빛 같은 청년에게 이 사회가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 저를 더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애도조차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산재(산업 재해)·재난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보듬지도 못한 채 죽음의 진실 규명을 위해 생계와 일상을 버리고 외롭고 힘겹게 싸워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구조 개선을 외치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외면하면 매일 7~8명씩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비를 맞아 주었고 집중해주었습니다.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태안에서,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가 왜 죽었지?' '특성화고 학생이 왜 실습 중에 사망했지?' '한빛은 왜?' '차별금지법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왜 계속 제기되지?' 하고 질문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지 끝없이 묻고, 안전한 세상과 존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답을 함께 찾았습니다. 그 부축의 힘으로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만들어졌고, 비록 내 가족은 죽었지만 그 슬픔을 넘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피해자 운동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미사로, 5월 '산재 유가족 곁으로'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해주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복음 말씀은 '자본보다 인간', '이윤보다 생명'이라

는 상식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부축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흑산도 어부는 힘들게 수확한 해산물을 판매할 때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꼭 떼어 후원합니다. 반짝반짝 등대가 될 수 있어 기쁘다는 그의 나눔의 삶은 큰 응원이 됩니다. 불광동 작은 서점 <한평책방>에서 열렸던 '괜찮으시면 한빛을 밝혀주시겠어요?'에서는 도서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를 읽는 만큼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믿음으로 책이 판매될 때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책방지기가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신만의 예식이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이런 나만의 전례를 해 본 적이 없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175개의 촛불이 켜지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내내 무모한 일이라고 의심했었습니다. 나보다 더 상대적인 약자에게 손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시간을 그들에게 배려하기 위해 쓸 때, 부축이 또 다른 부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순간순간 예수성심의 신비를 느끼며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울컥합니다.

오늘도 함께 비 맞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껏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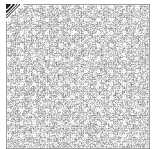


류상에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Lk 9.17



김혜영 사버나 | 한빛미디어노동안련센터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말씀의 이삭 원고 의뢰를 받고 자신은 없었지만, 한빛(프란치스코)을 얘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님들이 한빛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면 엄마로서 최고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밝게 쓰고 싶은데 한빛의 죽음을 떠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 미사를 드리러 온 교우들의 행복한 마음을 슬프게 할 것 같아 속마음을 감추니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처절한 몸부림을 뜨겁게 안아준 십자가와 저의 안간힘을 그대로 받아주신 하느님의 신비가 생각났습니다. 또 잊었습니다. 매년 오묘함에 놀라 눈물 흘리고 감사하면서도 그때뿐이고 저만의 '의식'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한빛은 세월호 리본을 제 가방에 달아 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에요. 기억도 의식을 갖추면 용기가 생겨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소망을 이루기가 쉽고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며 리본을 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미사 봉헌처럼 온몸과 마음을 집중해 공감하고 이웃과 함께할 때 외롭지 않음을 되살리니 비로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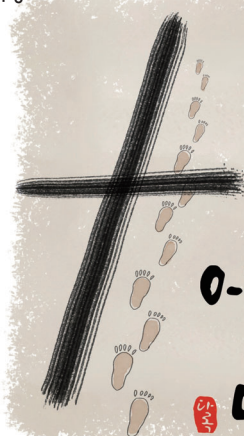
유아세례를 받은 한빛은 초등학교 때 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복사로 활동하려면 부모도 매일 미사를 같이 다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의식을 치르듯 엄격한데 저는 쉽게 복사 엄마가 됐습니다. 그러니 한빛이 복사하는 날이면 미사보다는 내 아들의 거룩한 모습을 다른 신자들이 알아주기만 은근히 기대했고 복사 엄마라고 우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겨울 새벽 미사도 함께 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전날 자신 있게 말하고도 아침잠이 많아 다음 날 일어나지 못했고 때로는 아픈 척도 했습니다. 혼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가는 한빛을 보면서 '어이구, 이려고도 엄마냐?' 하면서 자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 했고 대견하다는 칭찬도 못 했는데 한빛은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촛불 앞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지를 찾아 순교자의 삶을 묵상하고 의식을 치르듯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전후 기도도, 성호 긋기도 자연스레 한빛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나의 소망이었던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켜 늘 함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빛 없는 남은 삶은 행복할 수 없겠지만, 감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한빛이 희망하는 엄마의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원히 가시지 않을 슬픔을 주었지만,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한빛 프란치스코!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한빛의 행복했던 시간과 꿈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일상을 '의식'으로 봉헌하며 한빛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살겠습니다.

한빛 묵상



0-12로 71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2022. 9. 27